

## 국내최대 차이나타운 '첫삽' (경인일보 2005.10.08)

국내최대 차이나타운 '첫삽'

2005년 10월 08일 (토) 이종태 dolsaem@kyeongin.com

국내 최대 규모의 일산 차이나타운 건립이 본격화됐다.

엠차이나타운(주)는 7일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킨텍스(한국국제전시장)

지원시설부지에서 일산 차이나타운 1단계 건립 공사에 들어갔다.

일산 차이나타운은 부지 면적 2만 1천여평 연면적 17만평으로, 부지 면적 기준으로 인천 차이나타운(7천 700여평)의 3배 가까운 국내 최대 규모다.

엠차이나타운은 1단계로 1천 200억원을 들여 4천여평에 지하 2층 지상 3~6층(건축 연면적 1만 5천여평)의 '파크 애비뉴'와 '칭화 원도'를 지어 2007년 3월 개장할 계획이다.

파크 애비뉴에는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극비 방중때 찾았던 베이징의 취엔취덕 등 중국 유명 정통식당과 스타벅스, 패밀리 레스토랑, 중국 명품 및 공예품 등 150개 점포와 침, 발마사지, 동방 건강증진센터, 한방 클리닉 등 중국 전통 의료기관 및 체험센터가 들어선다.

칭화원도에는 지하 3층 지상 12층(연면적 7천평) 건물이 들어서 칭화 신과학기술센터 분원과 칭화대 계속교육원의 분교가 입주, 한중 산업과 기술 교류의 메카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일산 차이나타운에는 신라왕자로 중국에서 빈민 구제활동을 벌여 중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한국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히는 지장보살 김교각과 그를 끝까지 지켰던 삼살개의 동상도 세워질 예정이다.

엠차이나타운은 2 단계로 2009 년말까지 차이니즈 가든(6 천 500 여평),  
2010 년까지 차이니즈 팰리스와 게이트(1 만여평)를 각각 완공할 계획이다.  
엠차이나타운 이재령 부사장은 “일산 차이나타운은 킨텍스, 호수공원,  
노래하는 분수대 등과 어울려 쇼핑과 교육, 연구와 무역, 주거가 한 곳에서  
이뤄지는 21 세기형 신개념의 전형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고양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147>